8 주(2010.11.1):

사르트르의 증여론

I. 시작하면서

* 최근 증여, 기부, 나눔(don)에 대한 관심의 고조; 예) 자원봉사, 헌금, 기부, 장기기증 등; 과거에도 품앗이, 계 등의 형태에서 볼 수 있음;

* 도덕적 행위로 높이 평가되는 경향;

* 철학에서 도덕 정립의 문제;

* 오늘 : 증여 개념에 대해 중요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는 프랑스 사회학자,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의 「증여론」이라는 글을 중심으로,

- i) 증여란 무엇인가?; ii) 증여의 특징은?; iii) 도덕의 정립과 관련하여 증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등을 살펴보고,

* 모스의 증여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사르트르, 데리다, 바타이유 등;

II. 모스의 증여론

II.1. 모스는 누구?

* 마르셀 모스(Marcel Mauss: 1872-1950), 프랑스 로렌지방에서 출생;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E. Durkheim)의 조카;

* 「증여론」은 『사회학 연보 *L'Anneé Sociologique*』(1923-1924, t. I)에 처음으로 발표; 후일 『사회학과 인류학 *Sociologie et Anthropologie*』(PUF, coll. Quadrige, 1983(1950))에 수록;

* 국내에서는 이 논문이 『증여론』(한길사, 한길그레이트북스, 이상률 옮김, 류정아 해제, 2002.)(이하 ES 로 표기.)

* 「증여론」의 정확한 제목은 「증여론. 고대사회에서의 교환의 형태와 이유 Essai sur le don. Forme et raison de l'échange dans les sociétés archaïques」임;

II.2. 「증여론」의 주제

a) 주제 :

> "미개(未開) 또는 태고 유형의 사회에서 선물을 받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답례를 하게 하는 법이나 이해관계의 규칙은 무엇인가? 받은 물건에는 어떤 힘이 있기에 수증자(受贈者)는 답례를 하는 것인가?"(ES, p. 48)

b) 모스가 생각하는 증여론의 의의:

* 첫 번째 의의 : 현대사회를 포함한 여러 사회에서의 거래의 성질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교환과 계약의 현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것; 모든 형태의 교환에 스며들어 있는 법칙, 규칙, 가령 경제적 이성, 경제적 논리 등을 탐구;
* 두 번째 의의 : 도덕적으로 유용한 결론을 끌어내는 것;
c) 방법 : 비교연구; 교환을 사회 전체의 한 현상으로 여기고 이것을 거시적 시각에서 연구;
II.3. 포틀래취(potlach)에 대하여
a) 포틀래취란?
* 고대사회에서 한 부족이 부족 구성원들 사이의 위계질서나 다른 부족들과의 관계에서 힘의 우위 등을 나타내기 위해 이 부족 소유의 물건들을 주거나 파괴하는 행사;
* 포틀래취 : 치누크(chinook)어로 '식사를 제공하다' 또는 '소비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음; cf. 치누크족은 미국 북서부 콜럼비아강 유역에 사는 아메리카 인디언을 가리킴;
* 고대사회에서 부족들의 평화적 시기에서의 경쟁관계; 힘의 우월을 보여주기 위해 부족들끼리의 경쟁; 이때의 경쟁은 각 부족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태우거나 파괴함;
* 제일 많이 주고, 제일 많이 파괴할 수 있는 자 또는 부족이 힘이 제일 센 자이자 부족;
* ex) 포틀래취의 잔재 : 혼수; 일본에서의 선물 주고받기; 혼례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선 음식을 많이 장만하고, 행사 끝난 뒤 남은 음식을 나누어주고, 또 다른 사람 또는 부족도 그런 기회에 음식을 풍족하게 만들고 또 나누어주는 것, 등;
- 이처럼 포틀래취는 사람, 부족들 사이의 경쟁, 적대관계를 증명함;
b) 포틀래취는 왜 파괴적인가?, 다시 말해, 왜 힘의 우위를 결정할 수 있는가?
*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원료는 땅, 하늘 등과 같은 곳의 영(靈;hau)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어떤 물건에 포함된 영은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 이 물건을 주지 않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 한 사람 또는 한 부족에게 너무 많은 부가 축적되게 되면 곤란;
* 한 사람 또는 한 부족이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부족에게 주는 것은 주는 사람 또는 주는 부족의 '일부', 보다 정확하게는 '영혼'을 주는 것과 같은 의미;
* 따라서 '주는 것'은 '의무' : 첫 번째 의무;

"주어야 하는 의무는 포틀래취의 본질이다."(ES, p. 150)

"주어야 하는 의무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 초대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결연과 교제를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ES, pp. 73-74.)

"왜냐하면 물건 자체가 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영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는 것은 그의 정신적인 본질, 즉 영혼의 일부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물건을 간직하는 것은 위험하며 죽음을 초래한다."(ES, p. 71.)

* 주는 것을 '받는 것'도 '의무' - 두 번째 의무; 주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은 이미 의사소통의 단절, '전쟁', 파국을 의미;

"받아야 하는 의무도 주어야 하는 의무 못지 않게 강제적이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답례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답례하지 않으면 '코가 납작해진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 실제로 그때에는 이미 '코가 납작해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이름이 '권위를 잃은 것'이기도 하며, 또한 자기가 먼저 졌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승리자이며 무적(無敵)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ES, p. 159.)

* '갚아야 하는 의무' - 세 번째 의무; 이것은 주는 것을 받은 사람 또는 부족의 위신과 명예에 관계됨; 만약 갚지 못한다면, 또한 받은 것보다 못한 것으로 갚는다면, 이것은 이미 '체면'이 손상되는 행위;

"포틀래취가 순수한 파괴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답례의 의무가 포틀래취의 전부이다. (.....) 그러나 포틀래취는 언제나 받은 것보다 더 성대한 포틀래취로 답례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 선물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답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상당한 정도로 답례하는 의무는 절대적이다. 답례하지 않거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 물건을 파괴하지 않으면 '체면'을 영원히 잃어버린다."(ES, pp. 162-164.)

* 포틀래취의 또 하나의 특징 : '시간의 지연';

"모든 형태의 사회에서 선물의 본질은 어떤 의무적인 시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어떤 형태의 답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ES, p. 35?)

II.4. 모스가 구상하고 있는 도덕

* 사회보험, 상호부조 조직, 협동조합, 직업단체, 공제조합 등 = 공동분배(ES, p. 257.)
* '고귀한 지출'(dépense noble)(ES, p. 255.);

III. 사르트르에게서의 증여

III.1. 증여 : 사르트르 연구자들이 최근 주목하기 시작한 개념;
a) 『존재와 무』에서 이 개념은 '행동(함), 소유(가짐), 존재(있음)'의 장(章)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사르트르에 의하면, 모든 '창조'는 '주는 것', 즉 '증여'와 동의어; 즉, '나'는 내가 만든 것을 '타자'에게 줌;

> "이처럼 결국 모든 창조는 증여이며, 증여 행위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보게끔 주는 것(Donner à voir)', 이것은 너무 자명하다. 나는 이 세계를 보게끔 준다. 나는 이 세계를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 존재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속에서 나는 수난으로서 나를 상실한다."(『도덕을 위한 노우트 *Cahiers pour une morale*』, p. 137.)

* 사르트르는 이 관계를 '포틀래취'의 예를 들면서 설명;
* 사르트르는 "준다는 것은 타자를 호리고,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관용(générosité) = 파괴행위로 봄;

> "이리하여 관용이란 무엇보다도 파괴적인 작용이다.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들을 사로잡는 증여열(贈與熱)은 무엇보다도 파괴열이다. 그것은 광란적인 태도라든지, 대상물들의 파쇄를 수반하는 어떤 사랑과도 맞먹는다. 그러나 관용의 밑바닥에 깔린 이와 같은 파괴열은 하나의 소유열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존재와 무』, p. 684.)
> "준다(donner)는 것은 자기가 주는 대상물을 소유적으로 향수하는 일이며, 그것은 아유화적-파괴적인 하나의 접촉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증여는 증여를 받는 상대방을 홀려 놓고 만다. (.....) 준다는 일은 굴종시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준다는 일은 이와 같은 파괴를 이용해서 타인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일이며, 이 파괴에 의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일이다."(『존재와 무』, pp. 684-685.)

* 『존재와 무』에서 사르트르는 모스가 주장한 증여의 부정적 측면만을 수용하고 있음;
b) 사르트르의 증여 개념에 대한 긍정적 해석
* 『존재와 무』의 말미에서 도덕에 대한 언급;
* 『도덕을 위한 노트』: 사후 저서; 그러나 『존재와 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씌어짐; 정반대의 주장으로 옮겨가고 있음 :

"존재론적으로 증여는 무상이며, 동기 부여가 안 된 것이며, 이해득실이 가미되지 않는 것이다. Ontologiquement le don est gratuit, non motivé, désintéressé." (『도덕』, p. 382.)

*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 증여 = 포틀래취 = 관용의 개념을 '파괴'와 같은 것으로 보고 여기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했던 이유 = 증여 행위에는 들어 있는 '주체성'이라는 '독성(毒性)' 때문;
* 따라서 문제는 이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음;
* 다시 말해, '순수한 의미'의 '증여'가 존재하느냐, 그야 말로 '절대 무상(無償)'의 '증여'가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음;
* 사르트르의 대답은 긍정적 : 사르트르는 그러한 '증여'의 예로 '창조행위',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학작품'을 들고 있음;
*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르트르에 의하면 모든 '창조'는 '증여' 행위와 동의어;
* 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 : '작품'을 매개로 한 증여라는 것;
* '나'가 '나'를 직접 '타자'에게 주는 행위(즉, 신체를 통해 타자에게 현전하는 행위)를 통하면 항상 갈등의 관계로 빠질 수밖에 없음; cf. 시선과 시선의 투쟁;
* 따라서 사르트르는 증여, '순수한 증여'는 항상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음 :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 : 항상 작품을 매개로 이루어짐"(『도덕』, p. 487.)

cf. "글쓰기는 증여이다."(사르트르, 『문학이란 무엇인가』); "나는 증여자였고, 증여였다"(사르트르, 『말』), 등의 표현은 예외 없이 지금까지 살펴본 증여 개념과 무관하지 않음;
* 익명의 증여;

Ⅳ. 바타이유에게서의 증여

Ⅳ.1. 바타이유(G. Bataille)(1897-1862) 사상의 요약

a) 바타이유에 대한 평가 :

* 푸코의 말 : "우리는 오늘날 알고 있다. 바타이유가 그의 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가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G. Bataille, *Oeuvres complètes9* 『전집』 0, I 권, 5 쪽, 전집 간행사의 첫마디.);
* "그가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푸코도, 들뢰즈도, 데리다도,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도 없었을 것"(베르나르 시세르, 『프랑스 지성사 50 년』, 끌리오, 1998, p. 82.)
* cf. 데리다와 푸코의 찬사 : M. Foucault, "Préface à la transgression", *Critique*(août-septembre 1963), pp. 751-769; *Dits*

et écrits I, Gallimard, 1994, pp, 233-250; J. Derrida, "제한경제에서 일반경제로(De l'économie restreinte à l'économie générale)", in 『글쓰기와 차이 *L'Ecriture et la différence*』, Seuil, 1967, pp. 369-407.

* 사르트르와의 비교 : Jean-François Louette, "실존, 소비 : 바타이유와 사르트르(Existence, dépense : Bataille, Sartre)", 『현대 *Les Temps modernes*』, janvier-février 1999, pp. 17-36;

* 하버마스의 바타이유론 : "에로티즘과 일반경제 사이(Entre érotisme et économie générale)", in 『현대성 담론 *Le Discours de la modernité*』, Gallimard, 1988, pp. 249-280. (히틀러와 스탈린의 독재주의로의 경사를 비판);

b) 바타이유의 사상은 한 마디로 '신이 없는 계에서 신의 대리물(ersatz)를 찾는 것';

* 종래의 모든 틀, 폐쇄된 틀(경제, 법, 정치, 종교, 과학, 글쓰기 등)을 깨고(cf. 망치를 들고 철학을 한다는 니체를 떠올리자; 그리고 바타이유의 『니체론』 참고) 사유와 언어가 갈 수 있는 극한까지 가보면서, 또는 그 극한을 체험하면서 삶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려고 노력한 사람; "인간의 가능성의 한계까지로의 여행"(『내』. p. 19.)

>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이 무엇을 표상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신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u>그리고 신이라는 존재를 제거할 때, 그 자리에는 그 무엇이 남는다고, 즉 빈 자리가 남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빈 자리에 대해서였다</u>."(Madeleine Chapsal 과의 대담)
>
> "<u>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의 극한이다</u>. 신 자신이 이미 알지 못하고 절망하고 살육자가 되는 그런 극한의 경지이다. 모든 것의 망각. 존재의 밤의 밑바닥으로의 깊은 강하. 무지에서 나오는 한없는 탄원, 고뇌 속으로 빠져드는 것, 심연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것, 그리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 공포를 체험하는 것. 고독의 추위 속에서, 인간의 영원한 침묵 속에서 전율하고 절망하는 것."(『내적체험』, pp. 48-49.)

* 바타이유는 이것을 "비지(非知; non-savoir)"로 규정; 이 상태의 '순간적 경험' = 도취; 황홀함; 신비주의적 경향; "신을 손아귀에 넣음으로써 전일자(全一者; tout)가 되려는 포부"; "흑색의 범신론";

* '웃음'의 의미 : 황홀한 상태가 계속되면 그것은 이미 황홀함이 아님; 거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부정하는 웃음 = 쓴웃음(rire jaune);

* 바타이유는 이를 '금기(tabou)와 위반(trangression)'의 개념을 통해; '정상(頂上)의 윤리(morale du sommet)'를 통해 기술하고 있음;
* 결국, "바깥(dehors)"의 사유; 극한, 극한 너머의 사유; "침묵을 붙잡으려는 불가능한 시도"; "그것도 언어라고 하는 이성적 도구, 한정적인 도구인 언어를 가지고 침묵을 그리려고 하는 노력"; cf. 『도덕경』 :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c) 『저주받은 몫 *La Part maudite*』(이하 『저』로 표기)에서의 제한경제와 일반경제

* '제한경제' : 재화의 습득과 생산, 그리고 그것의 보존과 재생산에 관심을 두는 경제;
* '일반경제' : 인간 활동의 궁극적인 형태는 '소비'라고 규정하고, 재화의 본질 역시 소모하는 데에 있음; 따라서 제한경제의 폐쇄적인 틀, 경계를 파괴하는 것이 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놀이, 생식, 희생, 죽음, 놀이, 예술, 희생과 소비로서의 문학과 시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 놓음;

> "인간은 소유 자원을 에너지로 환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자원을 성장을 위해 쓸 수만은 없다. 성장은 무한할 수도, 지속적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잉여 자원을 써버려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낭비하는 순간에조차도 획득을 열망한다. 심지어 인간은 낭비 자체를 획득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일단 자원을 소모하면 그 소모된 자원은 그것을 소모한 사람에게 특권을 안겨준다. 그래서 인간은 특권을 의식한 채 과시적 낭비를 하며, 결국 그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저』, p. 116.)

* 여기에서 바타이유는 모스의 「증여론」을 참조; 특히 포틀래취에 대한 논의를 참조;
* 바타이유 증여론의 특징 : 절대적인 선물, 철저히 자발적이고 비영리적인 증여의 가능성과 의미를 추적;
* 문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증여, 무조건적 증여, 절대적 증여가 가능한가?
* 다시 말해 증여자로 하여금 '극한'을 경험케 하는 증여가 가능한가?

- 그러나 모스적 시각으로 보면 '증여'란 항상 반대급부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타이유의 바램과는 달리 '증여'를 함으로써 모종의 이득(=생산)을 가져오게 되는 모순된 결과를 낳게 됨; 그러니까 일반경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다시 제한경제 체제로 다시 편입되는 논리적 모순;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바타이유는 계속되는 '전복(renversement)'을 말하고 있음 : "전복해야만 한다. 그것이 전부이다."(『저』, p. 52); 그렇게 함으로써 '순간적 황홀감'을 맛보기를 원함; cf. 절대적 존재(=신)이 있어 자신의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주고 느끼는 황홀감과 같은 성질의 것;

V. 데리다에게서의 증여

a) 인류학이나 경제학에서 '증여' 개념에 대해 다시 부각된 것은 데리다의 『시간을 주기 *Donner le temps*』(『시』로 표기)으로 인해서임; 1992 년에 나온 『죽음을 주기 *Donner la mort*』도 중요한 저서;

* 데리다의 관심은 선물과 시간, 또는 선물이 함의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

* 데리다에게 있어서 선물과 시간의 결합은 필연적; 선물은 어떤 시간을 요구함; 즉시 갚아져도 안 되고, 또 그 답례가 영원히 지연되어도 안 됨; '제한된' 시간의 지연을 요구;

* 데리다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절대적 의미의 선물'의 존재를 '부정'; 만약 절대적인 의미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순환, 교환되지 말아야 함; 왜냐하면 선물은 철저하게 무상이고, 공짜이어야 함; 즉 어떤 이득, 대가, 등가물을 갖지 말아야 함;

> "선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받은 자가 되갚거나, 변제하거나, 보상하거나, 책임을 벗거나, 계약을 생성하거나, 어떤 계약에 의해 빚을 절대로 지지 말아야 한다. (.....) 그러므로 최소한 받은 사람은 선물을 선물로서 인지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그것을 선물로 인지할 경우, 선물이 그에게 선물로 드러날 경우, 선물이 그에게 선물로 현현할 경우, 이 단순한 이유만으로 선물은 충분히 무효화 될 수 있다. 왜? 그러한 인지는, 말하자면, 사물 대신 등가물을 답례하기 때문이다."(『시간』, p. 26.)

* 이처럼 순수한 선물이 존재하려면 선물을 준 사람은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해야 함; 그것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억은 어떤 심리적인 대가를 얻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임; 더 나아가 망각 그 자체를 잊어야 함; 혹은 단순히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망각이 어떤 억압된 기억으로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함;

* 따라서 데리다에 의하면 이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불가능한 것을 주고자 하는 것, 절대적인 선물, 완전한 선물을 가정하는 것은 일종의 광기 cf. 이것이 바타이유 입장; ;

* 그러나 다른 한편 선물의 모든 가능성을 무효화시키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증여 행위나 제스쳐에서, 모든 심리적 움직임 속에서 교환을 찾아내고 경제를 확인하는 것 역시 일종의 광기, 즉 '경제적 이성의 광기'일지도 모름; cf. 이것이 모스의 입장;
* 그러니까 데리다는 모스와 바타이유를 둘 다 비판하고 있음; 즉, 바타이유가 '절대적 소비', '절대적 선물', '절대적 증여'를 꿈꾸는 것만큼, 모스가 선물이라는 복합적인 현상을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분석하려는 시도 모두를 비판하고 해체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선물이란 절대적인 의미의 선물일 수도 없고, 경제적 이윤추구와 합리성만으로도 분석, 이해될 수 없으며, 선물은 선물과 교환이라는 두 체계의 모순적 공존 속에서 존재함;

"탐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존, 동시성, 결합, 대칭, 구문, 체계, 결코 선물이나 교환이 각각 갖는 체계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 두 과정의 결합 - 'syn'이다."(『시』, p. 56.)

VI. 다른 학자들에게서의 증여

a) 부르디외(Pierre Boudieu)의 경우 : 선물과 시간의 문제를 관련하여 "시간 간격은 선물 혹은 이것의 답례를 어떤 과거도 미래도 없고, 계산도 없는 최초의 자비로운 행동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실천적 이성의 의미』)
b)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의 경우 :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 소비사회의 한 특징, 즉 기호의 소비가 모스에 증여론에서 다루어지는 증여, 선물 등의 체계와 유사하다고 보았음;

VII. 마치면서

- 최근의 도덕, 윤리 정립의 노력과 맞물려서 증여에 대한 관심의 고조; '관대함' 또는 '관용'의 윤리;
- 다른 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필요성;
- 문학에서의 논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

참고문헌

김상환, 「해체론의 선물 - 데리다와 교환의 영점(零點)」, 『현대비평과 이론』, 제 11 권 제 1 호(통권 21 호), 2004, 봄, 여름 (복간호.) (『철학과 현실」, 2004, 겨울, 63 호, 철학문화연구소에 재수록.)
김성례, 「증여론과 증여의 윤리」, 『현대비평과 이론』, 제 11 권 제 1 호(통권 21 호), 2004, 봄, 여름 (복간호.)

박일형, 「선물(膳物)이 경제: 모스, 바타이유, 데리다, 베케트」, 『비평과 이론』, 제 7 권 1 호(통권 제 10 호), 2002, 봄, 여름, 한국비평이론학회.
-----, 「문학의 경제 - 허구의 증여」, 『현대비평과 이론』, 제 11 권 제 1 호(통권 21 호), 2004, 봄, 여름 (복간호.)
정명환, 「사르트르의 낮의 철학과 바타이유의 밤의 체험」, 『세계의 문학』, 2001 여름, no 100, 민음사.
페나니스 (줄리언), 『이질성의 철학 그리고 바타이유, 보드리야르, 리오타르』, 시각과 언어, 백준걸 역, 2000.
Bataille (Georges), *La Part maudite,* Minuit, coll. Point, 1967.
Baudrillard (Jean), *La Société de la consommation*, Gallimard, coll. Idées.
Bourdieu (Pierre), *Le Sens de la prtaique,* Minuit, coll. Le sens commun.
Derrida (Jacques), *Donner le temps*, Galilée, 1991.
----, "De l'économie restreinte à l'économie générale", in *L'Ecriture et la différence,* Seuil, 1967, pp. 369-407.
Foucault (M.) "Préface à la transgression", *Critique*(août-septembre 1963), pp. 751-769; *Dits et écrits I,* Gallimard, 1994, pp, 233-250.
Godelier (Maurice), *L'Enigme du don*, Flammarion, 1996.
Habermas (J.), "Entre érotisme et économie générale", in *Le Discours de la modernité,* Gallimard, 1988. Hénaff (Marcel), *Le prix de la vérité : le don, l'argent, la philosophie*, Seuil, 2002.
Kirchmayr (Paoul), "Don et générosité, ou les deux chances de l'éthique", in *Ecrits posthumes de Sartre,* II, (Annales de l'Institut de Philosophie de l'Université de Bruxelles), Vrin, 2001.
Marion (Jean-Luc), *Etant donné*, PUF, 1997.
Louette (Jean-François), "Existence, dépense : Bataille, Sartre", *Les Temps modernes,* janvier-février 1999, pp. 17-36.
L'Ethique du don. Jacques Derrida et la pensée du don, Métailié, 1992.
Mauss (Marcel), "Essai sur le don. Forme et raison de l'échange dans les sociétés archaïques", in *Sociologie et Anthropologie*, PUF, coll Quadrige, 1983(1950).
Richard (Gildas), *Nature et formes du don*, L'Harmattan, coll. Ouverture philosophique, 2000.
Sartre (Jean-Paul), *L'Etre et le Néant: Essai d'ontologie phénoménologique,* Gallimard, coll. Bibliothèque des idées, 1943,
------, "Qu'est-ce que la littérature?", in *Situations, II,* Gallimard, 1948.
------, *Cahiers pour une morale,* Gallimard, coll. Bibliothèque de philosophie, 1983.